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

220억 투입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 건립 등 기반 구축 박차

완도군이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를 비롯한 해양생물과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건강 기능 식품, 의약품 소재,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선 완도군은 220억원을 투입해 기업 연구소 10곳, 스타트업 30곳이 들어서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를 내년 6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연구소는 해양바이오 소재 및 시제품 개발을 하는 공간으로 공동 실험실, 연구실, 회의실 등을 제공한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원료 소재 확보와 대량 생산, 고차 가공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군은 해양바이오 소재 산업 공급 기지를 조성하고자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도 설계 중이다. 이 시설은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바이오 원료 소재를 공급한다. 250억원을 투입해 해조류 탈염 및 중금속 제거 등 전처리 시설과 생산·품질 관리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계획 중인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팜'은 계절 변화에 따른 수온 변동 등 계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기능성 해조류를 연중 생산하는 시설이다. 사업비 200억원의 규모로 완도군 신지면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 내에 조성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시설들이 준공되면 소재 대량 생산, 원료 공급, 제품 개발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해양바이오는 최근 대두되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산업과 맞물려 발전 가능성이 무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연구소 조감도.

한하다"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완도군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민과 송년음악회 20~21일 영광예술의전당

영광군이 오는 20~21일 오후 7시 송년특집공연 '2022 송년음악회', '출하추동 디톡스 콘서트'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친다. 20일 시작하는 '2022 송년음악회'는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서훈)와 가수 소향, 테너 손민호, 소프라노 하나린이 울한해 수고한 영광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감동적인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출하추동 디톡스 콘서트'(21일)는 소리꾼 남상일과 가수 박구윤, 최연화, 조용주가 국악과 트유의 신선하고도 조화로운 무대를 꾸밀 전망이다. 관람료는 전석 3000원(1인 2매 한정)이며, 입장권은 오는 14일부터 티켓링크, 영광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 전화예매(061-350-5400)가 가능하다. /영광=이중윤 기자 jylee@

박우량 군수 "신안,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역할 하고 있다"

캐나다 생물다양성 보전 실천행동 한국 지방정부 대표로 주제 발표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가 캐나다 몬트리올 팔레 드 콩그레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을 강화하는 성공적인 파트너십 사례 공유에 대해 한국 지방정부 대표로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13일 열린 주제발표에서 박우량 회장은 "한국은 개발 압력이 높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군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한국에서 핵심지역 역할을 하고 있으며 9개 분류군 총 5575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으며 주민과 철새의 공존을 위해 작물을 직접 경작해 철새들을 위한 먹이와 휴식지 제공을 통해 철새 중간기착지로서의 지원 활동도 소개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증가에도 큰 도움을 주는 철새



박우량 신안군수가 한국 지방정부 대표로 생물다양성 증진 사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와 지역주민들의 공존을 위한 노력, 생태자원 조성, 신안갯벌을 찾는 바닷새 보호를 위해 보호펜스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각각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고 군은 전했다. 신안군은 그린카본, 블루카본,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연간 2억2000만t의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정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

역주민들의 공생을 만들어낸 최고의 모델이라고 자평했다. 박우량 회장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신안군이 GBF를 이행하는데 핵심코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해남 흑석산 자연휴양림, 산림복지 '최우수' 일회용품 없는 휴양림 첫 선포...소외계층 나눔의 숲 운영 등 성과

해남군 흑석산자연휴양림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140개 국공립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비롯해 시설관리,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고객만족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흑석산자연휴양림은 올해 노후화된 숲속의 집 14개동을 신축 완료해 휴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시설 기반을 확충했다. 지난 7월부터는 일회용품 없는 자연휴양림 선포하여 지속가능한산림관광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주

말 원데이 클래스, 5월의 가족의 달 행사, 숲속 음악회 개최, 치유 인문학강좌 등 숲속에서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운영한 지역주민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나눔의 숲 시범운영으로, 숲의 사회공헌 및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섰다는 호평을 받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흑석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목포시, 소각시설 건립 시민공청회

28일 시민문화체육센터...소각방식·대기오염도 등 토론

목포시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목포해양대학교 김도희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를 주재자로 각 분야 전문가, 소각방식별 시공 및 운영

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해 소각처리방식(스토커, 열분해) 운영 및 효율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감소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설명하고 자유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시민 건강권을 더욱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과 해법 모색을 위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회수(소각)시설 랜선 주민설명회(2020년 12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2021년 3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2021년 5월 28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2022년 2월 10일) 등 4차례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 해상 수중암초에 등표 신설

목포해수청, 진도(목포)~제주 여객선 항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진도군 임회면 사자도 전면 해상 수중 암초에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사자도남방등표를 설치했다. 등표는 암초 위나 수심이 얇은 곳에 설치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 이 등표는 9억 원을 투입해 직경 1.2m, 높이 16.9m 규모의 원형 강관구조물로, 등표의 남쪽으로 향해 가능성을 표시하는 바다의 신호등이다.

등표가 설치된 해역은 유속이 빠르고 수중 암초가 산재해 있어 사고 위험이 높고 선박 통항 시 암초로 인한 좌초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일반 소형어선은 물론 지난 5월부터 진도-제주 여객선 취항으로 항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등표 설치가 안전운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